

‘연속성·지속성 강조’ 클린스만호, 11월 A매치 명단 오늘 발표

16일 홈에서 싱가포르와 북중미 WC 아시아 지역 예선 이후 21일 중국 원정으로 두 번째 경기... 첫 실전 치뤄 대승 거뒀던 10월 명단과 큰 변화 없을 것으로 보여

부임 후 첫 실전에 나서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11월 A매치를 함께 할 남자 축구 대표팀 명단을 발표한다. 대한축구협회는 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11월 A매치에 나갈 명단을 공개한다. 이번 A매치를 통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두 경기를 소화한다. 한국은 2차 예선 조 편성에서 싱가포르, 중국, 태국과 C조에 묶였다. 이번 11월 A매치서는 오는 16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싱가포르와 첫 경기를 치른 뒤 21일 오후 9시 중국 선전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중국 원정으로 2차전을 갖는다. 클린스만호의 첫 실전이다. 지난 3월 출범한 클린스만호는 3월, 6월, 9월 그리고 10월 A매치를 통해 총 8번의 평가전을 치렀다. 이 과정에서 전임자인 파울루 벤투 전 감독(현 아랍에미리트 사령탑)과 달리, 팀이 추구하는 방향이 명확하지 않아 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

다행히 9월 A매치부터 성과는 냈다. 첫 번째 상대였던 웨일스에 0-0으로 비겼고, 두 번째 경기서 만난 사우디아라비아전(1-0 승)에서 클린스만 감독 부임 후 첫 승리를 거뒀다. 이후 10월 A매치였던 튀니지전 4-0, 베트남 6-0 등 대승을 연달아 챙기면서 4경기 무패(3승1무)를 기록하며 분위기를 반전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베트남전을 통해 무패를 기록한 이후 “팀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져가기 위해 최적으로 팀을 꾸렸다. 11월에는 월드컵 2차 예선이 시작하고 이후엔 아시안컵에 나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이번 명단은 10월 A매치와 큰 변화가 없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특별히 주전급 자원 중에서 부상인 선수도 없다. 클린스만 감독은 주전 구성을 묻는 질문에 “배대가 되는 선수가 8명 정도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주장’ 손흥민(토트넘)을 필두로 황희찬(울버햄프턴), 조규성(미드윌란),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황인범(츠베스다), 이재성(마인츠),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등 해외파들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경기력이 최상인 데다, 많은 출전으로 인한 컨디션 과부하 이슈 정도만 있을 뿐 특별한 부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해외파인 정우영(슈투트가르트), 오현규(셀틱), 황의조(노리치시티) 등은 마수길 이 골 등 좋은 활약을 펼치며 선수단 깊이를 더 강하게 만들기도 했다. 아울러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10월 A매치

에 소집됐던 선수 대부분의 컨디션에 문제가 없다. 국내파인 정승현, 김영권, 조현우, 설영우(이상 울산현대), 김진수(전북현대), 이순민(광주FC) 등은 물론, 중동 무대를 누비는 박용우(알 아인), 김승규(알 사뱌) 등도 소집이 가능하다. 선수단 소집에 변수가 없는 만큼, 지난 A매치에서 보였던 경기력만 이어간다면 북중미

월드컵을 향해 기분 좋은 첫발을 내디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클린스만 감독은 발표 전 마지막 선수 점검에 나섰다. 지난 3일 귀국, 4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진행된 프로축구 K리그 포항스틸러스와 전북현대의 ‘2023 하나은행 FA컵’ 결승전을 직관했다. 뉴스



쇼트트랙 대표팀에 나란히 승선한 동명이인 박지원. 왼쪽이 남자부 박지원, 오른쪽이 여자부 박지원.

쇼트트랙 박지원, 4대륙선수권대회 男1500m 우승

‘동명이인’ 여자 박지원 500m 2위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 박지원(서울시청)이 4대륙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박지원은 5일(한국시간) 캐나다 퀘벡주 라발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4대륙선수권대회 남자 1500m 결승에서 2분33초158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4대륙선수권대회는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선수들이 겨루는 대회다. 2022-2023시즌 월드컵 시리즈 세계 랭킹 1위였던 박지원은 대회 첫날부터 금메달을 목에 걸며 다관왕 가능성을 높였다. 같은 종목에 함께 나선 김건우(스포츠토모)는 동메달(2분33초324)을 땀다. 동명이인 선수인 여자대표팀 박지원(전

북도청)은 여자 5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44초192로 결승선을 통과한 박지원은 미국의 크리스틴 산토스-그리즈웰드(42초760)의 뒤를 이었다. 심석희(서울시청)는 동메달(45초873)을 거머쥐었다. 여자 1500m 종목에선 메달 상장에 실패했다. 이소연(스포츠토모)이 4위를 기록했고, 박지원과 심석희는 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남자 500m에서도 한국 선수 전원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한편 남녀 계주는 모두 준결승을 1위로 통과하며 결승에 안착했다. 남녀 계주와 혼성 3000m 계주, 남녀 1000m 결승은 6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호날두, 리그 12호골...30세 이후 400득점+리그 득점 1위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 알나스르에서 뛰고 있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리그 12호골이자 30세 이후 400번째 득점을 기록하며 팀에 승리를 안겼다. 알 나스르는 5일 오전 3시(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알 아할 파크에서 열린 2023-2024 사우디 프로페셔널 리그 12라운드 알갈라브전에서 2-0으로 이겼다. 전반 26분 호날두가 선제골을 기록한 데 이어, 과거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에서 뛰었던 수비수 아이메릭 라포르테가 추가골을 넣었다. 이날 승리로 승점 28(9승1무2패)로 리그 2위를 달린 알나스르는 1위 알힐랄(승점 32)과의 간격을 4점 차로 이여졌다.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이날 득점은 호날두가 30세 이후 기록한 400번째 득점이라고 한다. 호날두는 개인 통산 863골을 기록 중인데, 그중 절반에 가까운 득점을 30세 이후에 기록했다. 또 리그 득점 순위도 짙은 존재감을 보였다. 호날두의 알갈라브전 득점은 리그 12호골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다. 2위는 과거 풀럼(잉글랜드)에서 뛰었던 알렉산드르 미트로비치(알힐랄·9골)다. 한편 이날 경기에는 한국 축구 대표팀 미드필더 출신 정우영이 뛰었다. 선발 출전했던 그는 후반 32분 하마드 알 아브단과 교체됐다.

‘5연승’ 삼성화재, 한국전력 꺾고 선두 도약...요스바니 25점

김정호, 10득점 승리 견인 한국전력, 최하위 머물러

삼성화재가 한국전력을 제압하고 선두로 올라섰다. 삼성화재는 5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3-2024 V-리그’ 남자부 한국전력과의 경기에서 3-0(28-26 25-21 25-22)으로 완승을 거뒀다. 파죽의 5연승을 질주한 삼성화재(5승 1패·승점 14)는 우리카드(5승 1패·승점 14)를 2위로 밀어내고 선두로 올라섰다. 승점은 같지만, 세트득실률에서 앞섰다. 삼성화재 외국인 선수 요스바니는 서브에이스 2개, 블로킹득점 2개를 포함해 25점을 올려 승리를 이끌었다. 공격성공률도 55.26%로 높았다. 김정호도 서브에이스 2개를 성공하는 등 10점을 기록해 승리에 힘을 보탤다. 3연패를 당한 한국전력(1승 5패·승점 3)은 최하위에 머물렀다. 한국전력 타이슨(16점)과 신영석(11점), 서재덕(11점)이 본전도 연패를 막지 못했다. 삼성화재는 1세트에서 혈투 끝에 기선을 제압했다. 삼성화재는 1세트 중반 이후까지 16-18로 끌려가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상대



의 서브 범실과 요스바니의 오픈공격으로 동점을 만들었다. 세트 후반 24-23으로 리드했던 삼성화재는 김정호의 서브 범실로 듀스를 허용했다. 하지만 26-26에서 한국전력 서재덕의 서브 범실에 편승해 세트 포인트를 만든 후 김준우가 임성진의 공격을 가로막아 1세트를 가져왔다. 삼성화재는 2세트에서도 중반에 집중력을 발휘했다. 11-11에서 김정호의 백어택에 이어 요스바니의 연속 서브 득점으로 14-11을 만들

었다. 이후 24-21에서 김정호의 킥오프로 2세트를 승리했다. 승기를 잡은 삼성화재는 3세트에서도 후반에 승부를 갈랐다. 17-17에서 요스바니의 연속 득점으로 점수 차를 벌렸다. 23-12에서는 상대의 서브 범실로 매치 포인트를 만든 후 24-22에서 신영석의 공격이 빛나면서 25-22로 이겼다. 한국전력은 중요한 순간에 범실을 기록하는 등 어렵게 무릎을 꿇었다.

피겨 이해인, 점프 실수 속 시즌 첫 그랑프리서 4위

한국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간판 이해인(18·세화여고)이 점프 실수를 연발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시니어 그랑프리 개인 첫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이해인은 4일(한국시간) 프랑스 양제의 앙제 아이스 파르크에서 열린 2023-2024 ISU 시니어 그랑프리 3차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61.92점, 예술점수(PCS) 62.74점을 합해 124.66점을 받았다. 전날 쇼트프로그램(66.30점)을 합해 총점 190.96점을 받은 이해인은 4위가 돼 아쉽게 메달을 놓쳤다. 2021년 3월 세계선수권대회를 통해 국제 시니어 무대 데뷔전을 치른 이해인은 올해 2월 4대륙선수권대회 우승, 3월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을 따내며 한국 피겨 여자 싱글의 간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유독 시니어 그랑프리 메달과는 연을 맺지 못했다. 시니어 그랑프리 시리즈에 처음 나선 2021-2022시즌 두 차례 대회에서 각각 7위, 10위에 그쳤다. 지난 시즌에는 두 번 모두 4위로 메달에 닿지 못했다. 올 시즌 첫 그랑프리 대회인 이번 대회에서

쇼트프로그램 3위에 오르며 메달 기회를 키웠으나 프리스케이팅에서 점프 실수를 저지른 탓에 메달 획득이 불발됐다. 이해인은 첫 과제인 더블 악셀-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무난하게 소화했지만 이어 시도한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에서 착지가 흔들려 손으로 땅을 짚었다. 언더로테이트드(점프의 회전수가 90도 이상 180도 이하로 모자라거나 2배) 판정이 나오면서 기본점이 10.10점에서 9.26점으로 내려가고, 수행점수(GOE) 2.61점이 깎였다. 이내 안정을 되찾았다. 트리플 루프, 트리플 살코 점프를 실수없이 뒀 이해인은 플라이 카멜 스핀, 플라이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을 모두 최고 난도인 레벨4로 연기했다. 코레오 시퀀스로 연기를 이어간 이해인은 10% 가산점이 붙는 연기 후반부에 트리플 러츠-더블 토루프-더블 루프를 뒀 예정이었다. 그러나 첫 점프를 싱글(1회전)으로만 처리했다. 이어진 트리플 플립에서는 예지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 아텐션 판정을 받았다. 더블 악셀로 점프 과제를 모두 마친 이해인



은 스텝 시퀀스(레벨4),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레벨4)으로 연기를 마무리했다. 이해인은 이날 24일부터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6차 대회에서 개인 첫 시니어 그랑프리 메달 획득에 재도전한다. 이번 대회 여자 싱글 우승은 203.22점을 얻은 미국의 이사보 레비토가 차지했다. 198.80점을 받은 니나 핀자로네(벨기에)가 은메달을, 197.76점의 스미요시 리온(일본)이 동메달을 수확했다. 아이스댄스에 출전한 임해나-취안에(이상 경기일본) 조는 이날 벌어진 프리댄스에서 TES 61.27점, PCS 46.44점을 합해 106.71점을 얻었다. 전날 쇼트댄스(67.14점)를 합해 총점 173.85점을 받은 임해나-취안에는 6위로 대회를 마쳤다. 뉴스